

매운맛 소스, 스리라차 등 캡사이신 함량 최대 274배 차이

한국소비자연맹, 제품 20개 비교 나트륨 51배·당류 353배 차이 커 “소비자 구매·섭취 시 주의 필요”

시중에서 판매되는 매운맛 소스의 캡사이신류 함량이 최대 274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류나 나트륨 함량 차이도 커 구매·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은 18일 매운맛 소스 총 20개 제품의 매운맛 정도, 영양성분, 안전성 등에 대한 시험·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시험 대상 제품은 ‘GOTCHU 핫소스’(CJ제일제당), ‘데일리 핫칠리소스’(이마트), ‘만능마라소스’(더본코리아) 등 국내 11개 제품과 ‘리고 루이지애나 엑스트라 핫소스’(웨이비인터내셔널), ‘스리라차 핫 칠리 시즈닝’(케이제이씨퍼니) 등 수입 9개 제품이다.

시험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은 안전성 관련 기준에 적합했지만, 나트륨과 당류 함량, 매운맛 정도(캡사이신, 디하이드로캡사이신 함량)는 제품별로 차이가 컸다.

매운맛 정도 비교를 위해 캡사이신류 함량을 시험한 결과, 적게는 3.2mg/kg(케이-렉스리라차 소스/천하코퍼레이션)에서 많게는 877.2mg/kg(틈새소스/팔도)으로 매운맛이 최대 약 274배 차이가 났다. 캡사이신류는 고추에서 추출되는 무색의 휘발성 화합물로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다.

조사 대상 제품 중 1개 제품(틈새소스/팔도)만 매운맛 정도를 스코빌 지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가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시중에 판매되는 매운맛 소스 국내 11개 제품과 수입 9개 제품에 대한 실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수로 수치화해 표시했고, 나머지 제품은 매운맛 정도 표시가 없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매운맛은 개인 기호에 따라 느껴지는 정도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매운맛이 강한 경우, 설사, 속쓰림 등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식품 본연의 맛을 가릴 수 있으므로 그 정도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트륨 함량의 경우 100g당 최저 756.98mg(벨라 핫 양념치킨소스/벨라푸드)에서 최고 2909.09mg(진돗개 핫소스/네키드크루)으로 최대 51배 차이가 났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나트륨 일일 권장 섭취량은 2000mg이다. 100g당 나트륨 함량이 2000mg을 넘는 제품은 ‘리고 루이지애나 엑스트라 핫소스’, ‘만능마라소스’, ‘스리라차 핫칠리소스’, ‘틈새소스’ 등 5개였다.

당류 함량은 저당으로 광고한 4개 제품과 당류가 불검출된 1개 제품을 제외한 15개 제품이 100g당 최저 0.1g(타바스코페퍼소스/오투기)에서 최고 35.3g(데일리 핫칠리소스/이마트)으로 제품 간 차이가 최대 353배 차이가 있었다. WHO의 당류 일일 권장 섭취량은 50g이다.

단위당(100g 또는 100ml) 가격이 가장 저렴한 제품은 데일리 핫칠리소스(이마트, 677원/100g)였고, 가장 비싼 제품은 타바스코페퍼소스(오투기, 5987원/100ml)였다.

안전성 시험 결과, 전 제품에서 대장균과 타르색소가 불검출돼 기준에 적합했고, 보존료의 경우 소보산, 파라옥시안식향산이 사용된 제품은 있으나 모두 기준치 이내로 적합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농어촌공사, 국가산업대상 ESG경영 수상

지속가능 부문 3년 연속 대상

한국농어촌공사는 18일 개최된 ‘2024년 국가산업대상’ ESG 지속가능 부문 대상을 3년 연속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산업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공동으로 후원하는 ‘2024 국가산업대상’은 탁월하고 창조적인 경영활동으로 국가 산업과 경제 발전에 공헌한 기관에 주어지는 상이다.

공사는 농어업·농어촌 전문기관으로서 농업생산기반 정비에서 용수관리, 농지은행, 농어촌 활력 증진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공사의 고유 사업에 ESG 경영을 연계한 활동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21년에 ‘농어촌 사랑 GREEN가치

2030’을 ESG 경영 비전으로 선포한 이래, 공사는 사업에 부응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별 과제를 선정하고 ESG 경영위원회를 통해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의결, 자문, 점검하는 등 지속가능경영을 실현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다. ‘농어촌 사랑 Green 가치 2030’은 농어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愛) 자연과 환경(Green)을 지키는 일을 국민과 같이(가치) 하겠다는 2030년 공사의 ESG 미래상이다.

더 나아가, 지난해는 전기료와 유류비 인상에 따른 냉난방비 증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버섯재배사·양식장 등 234곳에 ‘저탄소 에너지사업 확대’로 연평균 55% 수준의 난방비용을 낮추고 농어촌의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폴리텍대, 다문화·씨름선수 등 이색 신입생

‘2년제 학위과정’ 신입생 소개 전 프로 씨름선수, 새 인생 설계

한국폴리텍대학에 외국인 입학자나 유턴 입학자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씨름선수 출신에서 새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 입학하는 등 이색 신입생도 눈길을 끈다.

18일 폴리텍대에 따르면, 2년제 학위과정인 경기안성반도체융합캠퍼스나 노측정과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자매인 마무로바 파르비나 마무로브나(33세)와 하미도바 샤희조다 마무로브나(29세)가 나란히 입학했다. 이들은 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 어머니 재혼과 이주를 계기로 각각 19살, 15살 되던 해, 한국에 들어온 중도입국 자녀다.

이들 자매는 전문 기술을 익히고 국적을 취득해 한국에 정착하는 꿈을 갖고 있다. 파르비나는 지난해 불합격한 귀화시험 재응시를 준비하고 있고, 샤희조다는 한국 귀화 신청 후 승인 대기 중이다.

프로 씨름선수에서 새 인생 설계를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 나노측정과 정현석 학과장이 파르비나(첫 번째), 샤희조다 자매에게 하이트 마이크로미터 장비를 이용한 높이 측정 실습을 지도하고 있다. /한국폴리텍대학

위해 입학한 경우도 있다. 폴리텍대 울산캠퍼스 에너지산업설비과에 다니는 김건형(23세) 씨는 중학생 때부터 11년간 씨름선수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김 씨는 “선수 생활 7년 차까지는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8년 차부터 입상하며 성과를 봤다”며 “끈기 있는 자세로 전문기술인으로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울산 정전사태… “시공사 작업절차 미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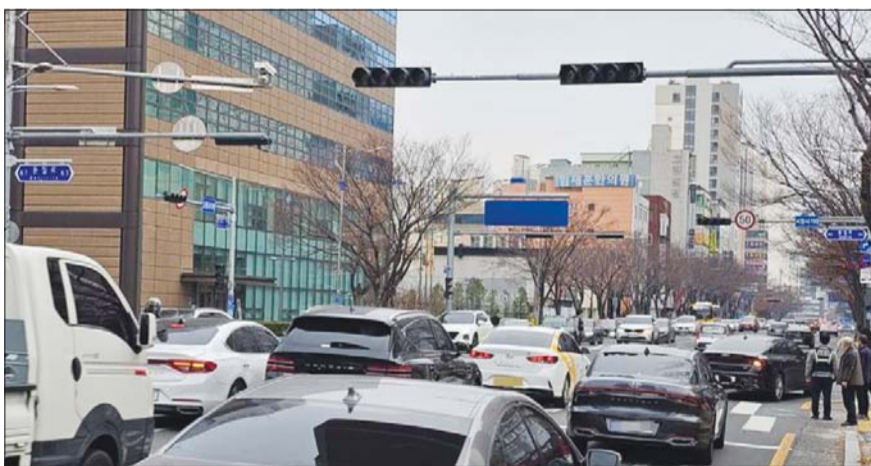
옥동변전소 고장원인 조사 결과 한전, AI 기반자동진단기술 도입 송·배전설비 관리체계 전면 개선

작년 연말 울산시 대규모 정전 사태 원인이 변전소 시공사 등의 작업절차 미준수와 관리 미흡 때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전력은 AI(인공지능) 기반 자동 진단기술 도입 등을 추진하는 등 송·배전설비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18일 지난해 12월 6일 울산 정전을 발생시킨 옥동변전소를 재점검하고, ‘옥동변전소 고장원인 조사반’의 조사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울산시 정전사태는 당시 1시간 50여 분 만에 복구 작업이 완료됐지만, 울산 일대의 15만 5000여 세대 정전이 발생했고, 신호등이 꺼지고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히는 등 피해가 속출한 바 있다.

한전은 복잡해진 전력망 여건과 설비 노후화에 따른 개선사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해 사고 직후 울산 옥동변전소 가스절연개폐장치(GIS: Gas Insulated Switchgear) 내부 파손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반을 구성해 133일간 조사를 벌였다.



2023년 12월 6일 울산 일부 지역에 정전이 발생해 울산시청 앞 도로 신호등이 꺼진 모습. /뉴시스

조사반은 옥동변전소 고장 원인이 시공사와 감리사의 작업절차 미준수, 작업 관리 미흡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GIS 교체 후 가스누기 보수 작업은 작업 구간 이외의 밸브가 닫혀진 상태에서 이뤄져야 했지만, 일부 밸브가 열려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절연가스(SF6)를 빼는 절차를 진행해 GIS가 파괴된 것으로 분석했다.

조사반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업실수 방지를 위한 시공 및 감리 체계 강화, 작업절차 관리 강화와 안전규정 준수 등을 권고했다.

한전은 이날 옥동변전소 현장 재점검회의에서 정전으로 인한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송·배전설비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전구간 축소를 위한 전력공급설비 이중화체계를 구성하고, AI 기반 자동 진단기술 도입 등 2034년까지 약 4조원의 설비투자를 추진키로 했다. 한전은 또 피해 접수된 사항에 대해 손해사정을 거쳐 5월 중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이번에 엄밀하게 조사한 옥동변전소 고장원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활용 및 메뉴얼 고도화 등을 통해 전력설비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해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촌인구, 65세 이상 고령층 50% 돌파

통계청, 2023년 농림어업조사

국내 농촌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경영주의 경우, 70세 이상 나이가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농가인구는 곧 200만 명을 밑돌 전망이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기준 우리나라 농가 인구는 208만 9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216만

6000명)과 비교해 3.5%(7만 7000명) 감소했다. 5년 전인 2019년(224만 5000명)에 비해서는 15만 4000명 줄었다.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은 52.6%로 1년 전(49.8%) 대비 2.8%포인트(p) 증가했다.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율(18.2%) 대비 34.4%p 높은 수준이다.

연령별 농가인구를 보면 70세 이상이 76만 7000명으로, 전체 농가인구의 36.7%를 차지했다. 이어 60대가 64만 명(30.7%), 50대는 31만 2000명(14.9%) 순으로 많았다. /세종=김연세 기자